

# KDB리포트

## KDB Report

### 이슈브리프

KfW의 생물다양성 로드맵과 지원 사례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

###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KfW의 생물다양성 로드맵과 지원 사례 .....	1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 .....	4

##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 .....	8
-----------------------------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1
--------------------	----



# KfW의 생물다양성 로드맵과 지원 사례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황현정 (hj03@kdb.co.kr)

- ◆ 생물다양성 손실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기 위험요인으로, KfW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3년부터 생물다양성 로드맵을 수립·이행
- ◆ 이와 함께 KfW의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은 관련 펀드 지원에서 녹색채권의 투자대상 포함, 건물의 녹색공간 마련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바, 국내 금융기관도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

## □ 생물다양성 손실은 심각한 장기 위험요인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영향

-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한 생산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생물다양성 손실에 따른 생태계 붕괴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부각  
-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는 단기(2년) 기준 20번째, 장기(10년) 기준 3번째\* 위험요인(세계경제포럼, "Global Risk Report 2024")  
\* (1위) 기상 이변, (2위) 지구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 유럽 기업의 약 70%가 하나 이상의 생태계 생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한 생물다양성 손실 위협의 영향을 받음(ECB, '23.8월)

## □ KfW\*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3년부터 생물다양성 로드맵을 수립·이행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48년 독일 경제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

- KfW는 금융기관 또한 생물다양성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통한 리스크의 식별과 관리, 회복력 증대, 부정적 영향 축소 등이 필요함을 인지
- 이에 따라 '23년부터 생물다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25년에는 그룹 차원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  
- 로드맵의 첫 단계('23.1월)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논의 주제를 정립하고 부서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 두 번째 단계('23.11~'24.12월)에서는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작업으로 5개의 과제\*를 설정
  - \* (과제 0) 생물다양성의 정의, 방법론 및 데이터, 보고 의무, 규제 이슈,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회 식별 (과제 1~3) 생물다양성 관련 ① 긍정적 영향, ② 부정적 영향, ③ 리스크 및 의존도 파악 (과제 4) 생물다양성 전략의 기본 구조, 목표, 활동 계획, 커뮤니케이션 등
- 세 번째 단계('25.1~'26.12월)에서는 KfW 그룹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네 번째 단계('26년)에서 리뷰를 거쳐 전략을 실행할 예정

**KfW의 생물다양성 로드맵**

	1단계	2단계	3단계	Review
시기	'23.1월	'23.11월~'24.12월	'25.1월~'26.12월	'26년
내용	· 그룹내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 정립 · 생물다양성(BioDiv) 태스크포스 설립	· 과제 우선순위 설정 및 비용 측정 등 기본작업 수행	· KfW 그룹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전략 실행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	· 기존의 절차 리뷰 및 후속 과제 설정

자료 : KfW('24), "A strategic approach to combat biodiversity loss : our roadmap"

**□ 생물다양성 로드맵 이행에 맞춰 KfW는 관련 펀드 지원 외에 녹색채권 투자대상에 생물다양성 분야를 포함하고, 건물의 녹색공간 마련 등으로 동분야 지원을 다양화**

- KfW는 '24.12월 기준 생물다양성 분야에 40억 유로 규모를 지원했으며, 중점 지원 분야는 산림 보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보호구역 관리, 해양 및 해변 보호 등
  - '23년에는 UN SDG\* 14(해양생태계 보존) 분야에 227 백만유로, SDG 15(육상생태계 보존) 분야에 1,014 백만유로를 지원
  -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지속가능발전목표)로, KfW는 UN SDG와 매칭한 자금지원 실적을 발표

**KfW의 UN SDG 14, 15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유로)




UN SDG	주요 내용	지원 금액	
		'22년	'23년
⑭ 해양생태계 보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17	227
⑮ 육상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990	1,014

자료 : KfW('24), "2023 Sustainability Report"

-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은 주로 펀드 설립 및 자금 지원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녹색채권의 투자대상 포함, 사무 건물내 녹색공간 마련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 수년간 브라질 아마존 펀드를 시작으로 eco.business 펀드, Blue Action 펀드 등을 지원
    - '24.1월부터 시행('23년 개정)한 자체 'Green Bond Framework'에서는 재생 에너지, 그린 빌딩,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등 기존의 녹색채권 투자대상 외에 생물다양성을 추가하여, 투자자들이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KfW 건물의 옥상 지붕에 식물을 심어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만들고 도심지역 기후 냉각에도 기여하는 등 KfW의 모든 건물에 녹색공간을 마련할 계획\*
- \* '22년에는 베를린 사무소 지붕을 그린 지붕으로 교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으며, '24~'26년 중 실제로 설치할 계획

주요 프로젝트 지원 사례

(단위 : 백만유로)

Amazon Fund	eco.business Fund	Blue Action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 등을 위해 '08년 설립된 펀드로 KfW는 10년간 90백만 유로 지원</li> <li>· '23년 브라질 산림 보호 및 재조림에 43백만 유로 추가제공 약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자원 절약, 산림파괴 방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로, KfW가 설립('14년)에 기여</li> <li>· 펀드 설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30억 유로 규모 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해양 및 해변 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KfW가 BMZ<sup>주)</sup>와 함께 설립</li> <li>· 에콰도르,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해양보호 프로젝트에 190 백만유로 지원</li> </ul>

주 : 독일 연방경제협력부

자료 : KfW('24.12월), "How KfW works to nurture biodiversity all over the world"

□ 국내 금융기관도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손실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전략 수립, 관련 분야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생물다양성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식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파악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 및 경영관리에 반영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호 및 자연 자원 보존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

# 게임 산업 내 생성형 AI 활용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오선영 (sunyoung@kdb.co.kr)

- ◆ 게임 업계는 게임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 중이며, 기획 단계에서의 창의성 강화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등에도 활용 중
- ◆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는 우려 사항이나, 동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게임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전망

## □ 게임 업계는 게임 제작 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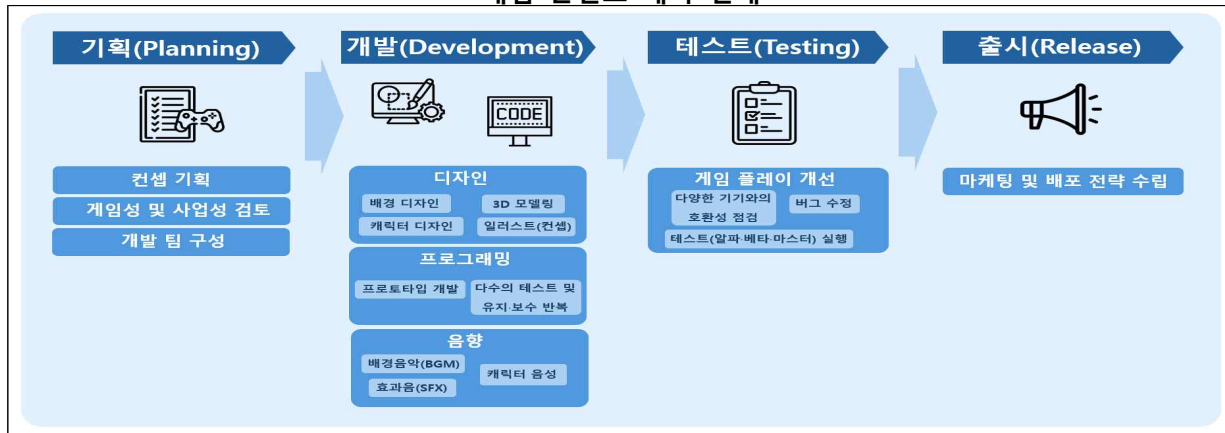
\* 생성형 AI(Generative AI): 이용자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공지능

○ 게임 콘텐츠 제작은 기획·개발·테스트·출시 순서로 진행되며, 게임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여러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개발 기간은 다소 소요

- 게임 기획부터 개발을 완료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19개월 25일\*로, 산업 평균(15개월 29일) 대비 오랜 시간 소모

\* 콘텐츠 산업(12개) 중 출판(평균 25개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제작 기간 소요

게임 콘텐츠 제작 단계



자료 : TDB 기술-시장 정보(모바일 게임), 당행 재구성

○ 게임업체들은 생성형 AI 기반 개발 도구를 출시하거나 상용 모델을 음성·그래픽 제작 등에 활용함으로써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생성형 AI를 통한 개발 생산성 강화 사례

구분	기업·국가	세부 내용
개발 시간 단축 사례	넥슨	- '보이스 크리에이터'를 출시함으로써 캐릭터 음성을 제작 · 제작 시간은 실제 녹음 대비 50분의 1 수준으로 단축
	엔비디아	- '라떼3D'를 공개함으로써 텍스트를 약 1초 만에 3D 그래픽으로 구현
	엔씨소프트	- '제로샷 멀티버스 TTS'를 제작함으로써 약 3초의 음성 데이터만으로도 다양한 스타일의 캐릭터 보이스 제작
개발 비용 절감 사례	중국	- Stable Diffusion 등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여 캐릭터 아트를 제작 · 캐릭터 디자인 외주 비용을 약 146만원에서 37만원으로 절감

자료 : 당행 재구성

□ 생성형 AI는 기획 창의성 강화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 등에도 크게 기여

- 생성형 AI는 게임 콘셉트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게임 기획을 지원하거나 기획안에 첨부할 참고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함으로써 기획자는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가 가능
  - (아이디어 제공) 시나리오 및 세계관 등 게임 콘셉트 기획을 보조
  - (참고 이미지 제작) 기획한 캐릭터 외형, 맵의 배경 등을 시각화하여 유관부서에 제안하기 위해 직접 스케치하거나 3D 모델링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대신 생성형 AI로 비교적 빠르게 제작

생성형 AI 기반 게임 캐릭터 서사 설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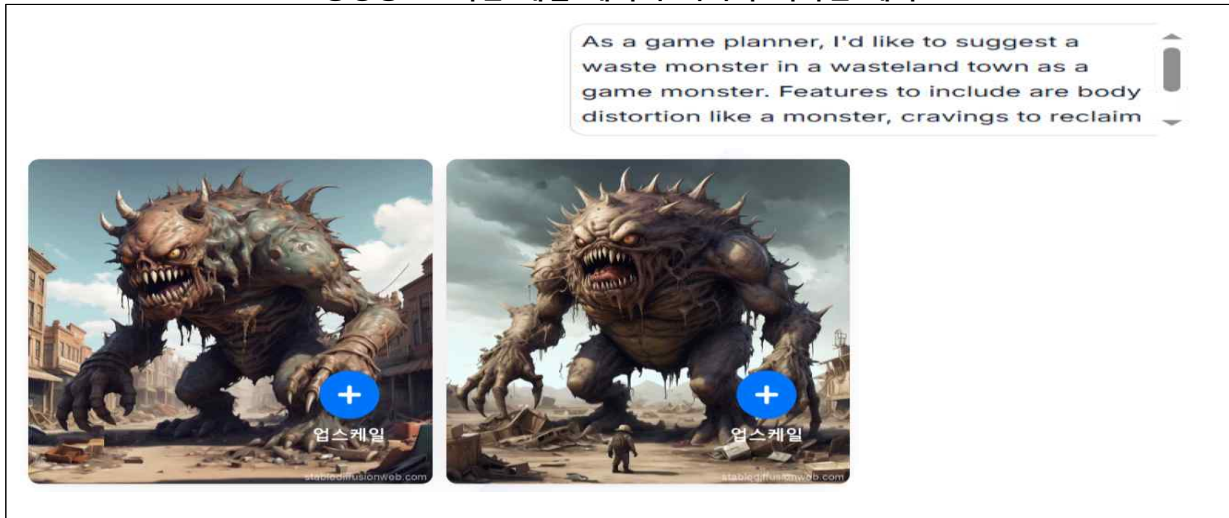
내가 기획할 게임의 세계관은 "디스토피아 기반의 황무지 마을"이야. 지금부터 너가 게임 기획자라고 생각하고 "황무지 마을에 있는 몬스터들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획해 줘.

**1. 폐기물 괴물 (Wastesworn)**

- 서사: 황무지 마을의 근처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산업 폐기물과 화학 물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근처 동식물들이 극단적으로 변형되었으며, 원래의 주민들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폐기물 괴물들은 과거 마을 주민들이거나 주변 생명체로, 그들은 오염된 물질에 의해 신체가 변형되어 변해버린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마을을 떠도는 저주받은 영혼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며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 특징:
  - 고통과 혼란 속에서 인간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나, 신체는 괴물처럼 왜곡된 형태로 변화.
  - 일부는 기억을 되찾으려 하거나 인간성을 되찾으려는 갈망을 품고 있음.
  - 환경에 적응해 독성을 분비하거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함.

자료 : ChatGPT-4o-mini, 당행 작성

생성형 AI 기반 게임 캐릭터 이미지 디자인 예시



자료 : Stable Diffusion, 당행 작성

- 이용자와 게임 캐릭터 간 생생한 상호작용 구현, 초보 플레이어의 게임 공략 실시간 지원 등에도 생성형 AI 활용
  - 렐루게임즈 ‘언 커버 더 스모킹 건’의 NPC\*는 대화형 AI 모델 GPT-4o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개별 이용자의 심문 방식 및 강도에 따라 반응 변화
    - \* NPC(Non Player Character): 플레이어가 조작할 수 없는 게임 캐릭터로, 통상 창고 관리인, 상점 주인 등으로 표현되며 플레이어에게 미션 등 정보를 제공
  -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처음 접한 사람이 AI 비서\* ‘코파일럿’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플레이 조언을 제공받는 데모 공개
    - \* AI 비서(AI Assistant): 사용자의 음성·텍스트 명령에 따라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존 게임 NPC(‘메이플스토리’)



자료 : 위키독스

게임 AI NPC(‘언 커버 더 스모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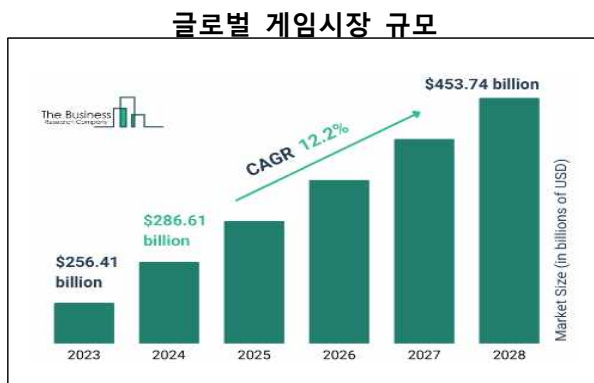
자료 : 인벤

□ 다만, 생성형 AI 활용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우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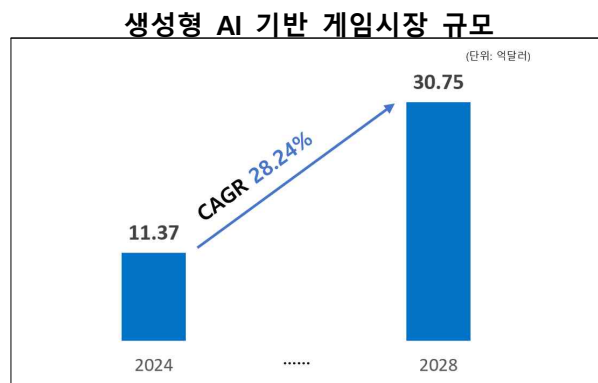
- 생성형 AI가 기존 게임 저작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할 시 이를 참고한 게임사들은 저작권 간접 침해 우려
  - '23년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1조 8,000억 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 AI가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자사의 라이선스 구매 없이 1,200만 장에 달하는 게티이미지 사진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
- 게임 제작사는 저작권 침해 소지를 방지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해 자사 보유 IP를 학습에 활용하며 대응 중
  - 엔씨소프트는 자사 IP(리니지, 아이온 등)를 데이터 학습에 투입하여 자체 생성형 AI 기반 개발 플랫폼 '바르코 스튜디오'의 기능 고도화

□ 생성형 AI의 발전에 힘입어 게임시장은 지속 성장 중

- '24년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약 2,866억 달러로 전년(2,564억 달러) 대비 11.8% 증가하였으며, '28년까지 연평균 12.2%의 성장 예상
  - '28년 글로벌 게임시장은 약 4,537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전망
- '24년 생성형 AI 기반 게임시장 규모는 약 11억 3,7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8.24% 성장하여, '28년 약 30억 7,500만 달러로 꾸준한 외형 확대 예상
  - 생성형 AI 기반 게임시장의 성장 속도(28.24%)는 글로벌 게임시장 성장세(11.8%)를 다소 추월



자료 :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24)



자료 : Market.us('24), 당행 재구성

# 국제금융시장 12월 동향 및 1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영 교 (yoonyk@kdb.co.kr)  
 심 한 용 (hyshim@kdb.co.kr)

- ◆ **(환율)** 12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상승하였고, 1월 환율은 무역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 **(금리)** 12월 주요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횟수 조정 전망 등으로 상승, 1월 주요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해소, 각국 통화정책회의의 결과 예상 등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 **(주가)** 12월 미국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하락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1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상승할 전망이나 유로존은 무역장벽 현실화시 조정 가능성

## □ 12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연준과 ECB는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 일본은 기준금리 동결

- 美 연준은 FOMC(17~18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4.75% → 4.50%)
  -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를 상향하였고, 고용 및 물가 목표 달성의 위험이 대체로 균형(roughly in balance)을 이루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며 25bp 인하 결정
  - \* '25년 전망(%,'24.9월 → 12월): 경제성장률 2.0 → 2.1, PCE 상승률 2.2 → 2.5, 실업률 4.4 → 4.3
  - 파월 의장은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금번 인하 결정은 박빙(dose call)이었다 언급하였고, 점도표상 '25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4회→2회)를 하향 조정
  -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9('24.7월) → 2.5(8월) → 2.4(9월) → 2.6(10월) → 2.7(11월)
-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12일)에서 기준금리 25bp 인하(수신금리 3.75% → 3.50%)
  - 역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순조로우나, 제조업 부진 등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물가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며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인하 결정
  - \* '25년 전망(%,'24.9월 → 12월): 경제성장률 1.3 → 1.1, 물가(HICP) 상승률 2.2 → 2.1
  - 라가르드 총재는 50bp 인하 논의도 있었다 언급하였고,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등이 경제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금리인하 지속 시사
- BOJ는 금융정책회의(18~19일)에서 기준금리를 동결(단기금리 0.25%)
  - 완만한 경기 회복세 가운데 해외 경제지표,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내년 춘투에 따른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등이 물가\*경로와 성장률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동결 결정
  - \*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8('24.7월) → 3.0(8월) → 2.5(9월) → 2.3(10월) → 2.9(11월)
  - 우에다 총재는 금리인상 관련하여 임금 동향과 미국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으로, 향후 지표의존적 의사결정을 시사하며 신중론 유지

□ '25.1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1월 FOMC(28~29일) : 미국 경제성장률('24.2Q 3.0% → 3Q 3.1%)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동결 전망이 우세하고, 파월 의장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등 기준금리 동결 전망

\* 연방기금금리선물에 반영된 1월 동결 확률은 88.8%, 25bp 인하 확률은 11.2%('24.12.30일)

\*\* 앞선 100bp 인하로 장기 목표금리인 중립금리 수준까지 남은 인하 폭이 줄었다 평가

- 한국, 금통위(16일) :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예고하였고, 11월 산업활동동향 결과\* 등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신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지속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

\* 주요 내수 지표(% , 전월비) : 전산업생산 △0.4, 소매판매 0.4, 설비투자 △1.6, 건설기성 △0.2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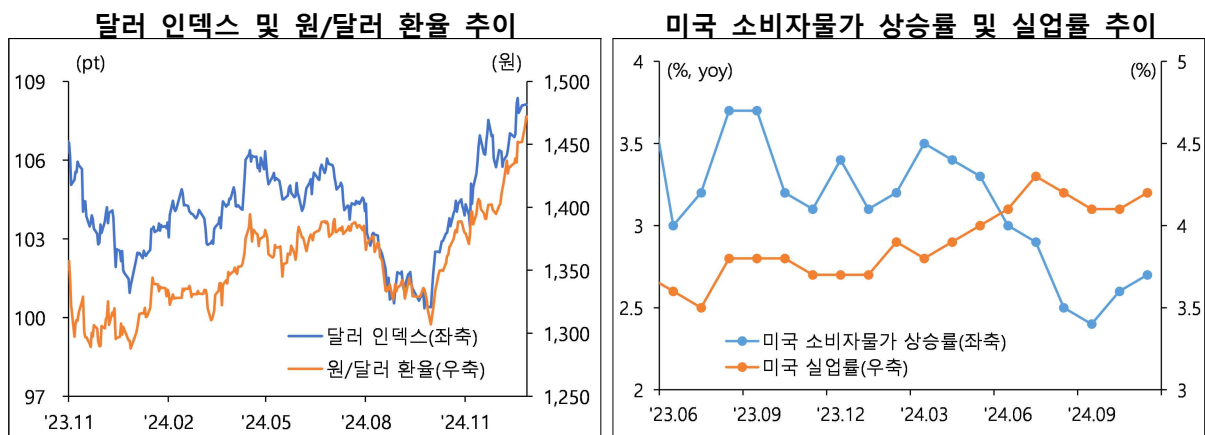
- (환율) 12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상승, 1월 환율은 무역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12월 원/달러 환율은 견고한 미국 성장률 등에 따른 강달러 영향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3일) 및 대통령 탄핵 가결(14일) 등 국내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원화 약세 지속으로 최고 1,486.7(27일 장중)원에 도달하는 등 상승세를 시현

- 1월 원/달러 환율은 무역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과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40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 국내 무역수지(억달러) : 82.9('24.6월) → 34.1(7월) → 36.6(8월) → 66.6(9월) → 31.7(10월)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순유입(억달러) : 18.6('24.7월) → △18.5(8월) → △55.7(9월) → △41.7(10월) → △29.5(11월)



	'22년말	'23년말	'24.11월말	'24.12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64.5	1,294.5	1,397.0	1,472.5	+5.4%
달러 인덱스	103.49	101.47	106.06	108.09	+1.9%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12월 주요국 금리는 연준 금리인하 횟수 조정 전망 등으로 상승, 1월 주요국 금리는 각국 통화정책회의 결과 예상 등에 따라 하방 압력이 우세할 전망
  - 12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신정부의 재정적자 가능성을 선반영하며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으로 상승, 유로존은 ECB 인사들의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상승, 일본 금리는 엔화 약세\*\*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동조하며 상승
    - \*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 에스 크리바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등은 25bp씩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
    - \*\* 엔/달러 환율(엔) : 150.0(7.31일) → 143.6(9.30일) → 149.6(11.29일) → 157.9(12.30일)
  - 1월 미국 금리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분을 반납할 전망, 유로존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으로 하락을 예상, 일본은 대외 불확실성과 엔화 변동성 등에 따른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
  
- (주가) 12월 미국 주가는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하락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상승, 1월 미국과 일본 주가는 상승 전망되나 유로존은 조정 가능성
  - 12월 미국 주가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주요 종목의 4분기 실적 경계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유로존은 ECB의 금리인하 지속을 기대하며 상승, 일본은 엔저 지속에 따른 양호한 수출주 실적 등으로 상승
  - 1월 미국 주가는 견조한 경제 상황, 일본은 주주 친화적 정책 지속 등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며 유로존은 트럼프 관세장벽 현실화 우려로 조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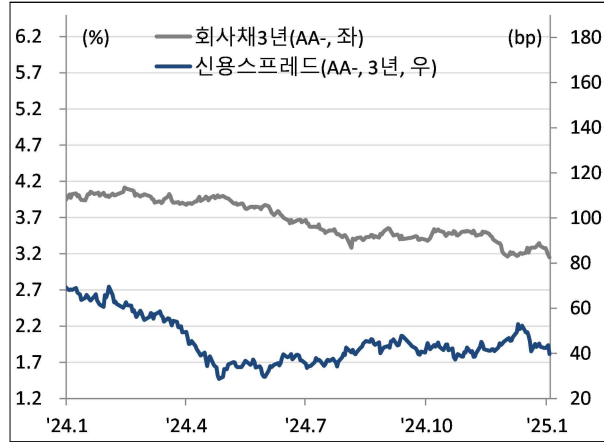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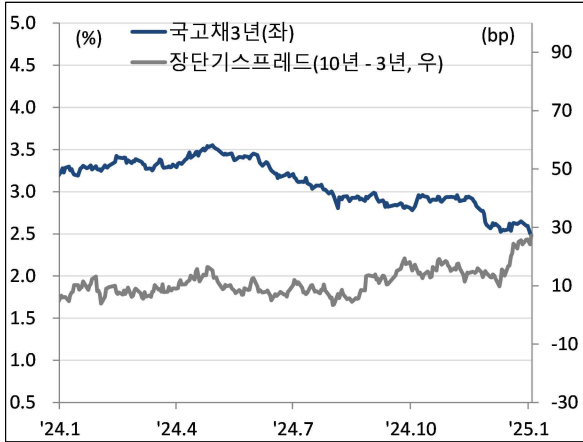


	'22년말	'23년말	'24.11월말	'24.12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748	3.897	4.263	4.533	+6.3%
독일채 10y	2.5710	1.979	2.160	2.367	+9.6%
일본채 10y	0.4220	0.623	1.060	1.101	+3.9%
다우존스	32,875.71	37,385.97	44,722.06	42,573.73	△4.8%
유로 Stoxx 50	3,808.82	4,521.47	4,733.15	4,869.28	+2.9%
Nikkei 225	26,340.50	33,169.05	38,067.18	39,894.54	+4.8%

자료 : Bloombera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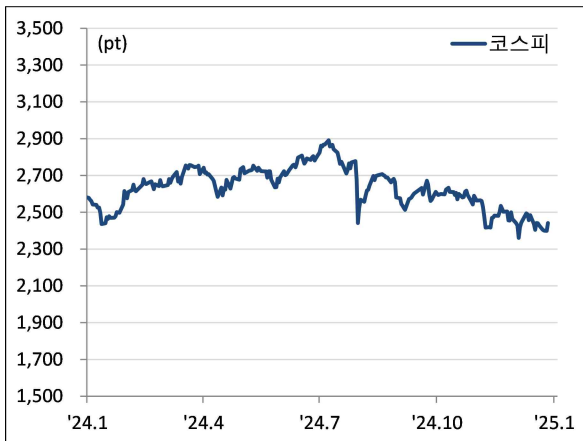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2.482% (5.9bp ↓), 신용스프레드 39.7bp (12.6bp ↓)



**환 율** 원/달러 1,468.4원 (35.4원 ↑), 엔/달러 157.35엔 (3.69엔 ↑)



**주 가** 코스피 2,441.92pt (2.11% ↓), 코스닥지수 705.76pt (1.73%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 KDB리포트

KDB Report

제1060호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37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